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3일 총무원에서 종단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4대 정책 기조	31대 핵심 정책 사업
수행종풍 진작으로 거듭나는 종단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 종단 근·현대 사상이 재조명 상설행자교육원 건립 중앙연수원 건립 승가교육기관 및 교육내용 재정비 신도조직 정비 및 포교인력 활용체계 구축 신도 신행체계 확립 승려복지방안 수립 및 시행 종도 의견수렴 제도 마련 및 종단운영 개선
참여 속에 함께 하는 원용종단	비구니스님 참여 확대 및 수행도량 지정 불교 생명윤리의 사회적 확대 수행환경 수요 및 자연환경 보존 활동 강화 한국불교교사문화기법관 완공 성보문화재 정비조사 및 관리체계 확립 불교 관련 전통 문화·문화재 복원 및 계승 전통불교문화센터 건립 불교사회복지기금 조성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 대청부 정책자문기구 구성
종도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종단	종단 발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중앙종무기관 조직 및 총무 시스템 개선 종단 재정운영 및 자산관리 개선 직할교구 활성화 계승포교 활성화 종합학교 육성책 마련 및 시행 기능과 분야별 전문 인력 육성 종단 기관지 위상 제고 및 운영 개선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세계화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 강화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와 세계문화축제의 해외 및 외국인 포교 활성화
미래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종단	

화합 · 신뢰의 종단 만들기에 '초점'

법장 총무원장 제시 31대 정책과제에 담긴 뜻

법장스님이 취임 100일을 맞아 제시한 4대 정책 기조 및 31대 중점 정책 과제는 사부대중의 참여 속에 화합하는 종단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계종으로 거듭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31대 정책 가운데 '종단 화합 및 발전 프로그램'에는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 △승가교육기관 및 교육 내용 정비 △승려복지방안 수립 △비구니 스님 참여 확대 및 수행도량 지정 등 굵직굵직한 종단 수월사업이 망라돼 있다.

이 가운데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진작은 지난해부터 교육원이 수행체계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다. 다만 '간화선 중심'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행해지고 있는 다른 수행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상설행자교육원 및 중앙연수원 건립은 접근 방법 및 추진 일정까지 제시돼 있어 올해 말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승려 노후복지기금 조성 등의 승려복지종합대

승려 노후복지기금 조성 실현 가능 시대 흐름 부합 사회·불교문화에 치중

책은 법장스님이 거듭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종도와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제시된 정책은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불교문화예술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와 불교문화 분야에 많은 정책 과제가 제시된 것은 불교가 시대흐름에 부합하고 생활화·대중화되기 위해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불교문화 진흥이 필

수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가운데 불교사회복지기금 조성, 불교종합사회복지센터 설립은 법장스님이 총무원장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종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승려복지 및 불교사회복지 구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세부내용 가운데 2004년까지 각 교구별로 환경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과, 불교 생명·윤리 연구회 구성,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및 박물관 대학 운영 등의 계획은 최근 그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한명우 기자 mwahn@buddhapia.com

"계파정치 인정하지 않겠다"

취임 100일 맞은 법장 조계종 총무원장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견해와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특히 98년 징계자의 사면 문제와 이날 밝힌 정책과제 가운데 핵심인 간화선 중심의 수행종풍 조성 등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요청하는 것이다. ▲정책 과제를 보면 재가자의 종단 참여에 대한 폭이 제한되어 있다는 느낌이 있다. 재가자를 포교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재가자의 부분적 참여는 지금도 보장되고 있다. 사찰운영위원회가 그것이다. 중앙의결기구(재가자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앞으로 시대를 맞을 때 재론될 것이다. 사찰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결론 보고서 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재가자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현재 다양한 수행법이 행해지고 있다.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자칫 다른 수행법에 대해 폐쇄적일 수 있고, 다양성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간화선 중심의 수행체계 확립은 바로 우리의 전통 선사상으로 종풍을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간화선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선이라는 것은 배타성 없이 일체를 수용하고 융합하는 것이다. 불교를 생활화하고 현대화하며 세계화하는 것을 간화선을 통해 하겠다는 뜻이다.

▲종단의 열린 기능, 즉 국민과 함께 할 것을 계속 강조해왔다. 현재 건립 중인 역사문화기념관에도 이런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 역사문화기념관이 모든 것을 다

'98 징계자' 해종행위 특별법으로 처리

전통문화센터·복지센터 임기내 건립

▲98년 징계자 문제를 놓고 원로회의와 총회가 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도 종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특별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종단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차원에서 사실은 같은 목소리다. 얼마 전 원로회의에서 징계자들에게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특별법에 계류 중인 사람들은 어떤 징계를 받을지를 호계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이것은 사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해종행위특별법 계류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면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들은 66.7%에 달하는 435명이 신도회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89.5%가 신도회 재정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총속시킬 수는 없다. 시민문화공간으로서, 불교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고려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전통문화센터와 복지센터 건립은 임기 내에 할 것이다.

▲지난 100일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 하루 3~4시간의 수면이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은 밖(대중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안(총무원)에 있으면 모두가 다 잘한다고만 하는데 여러 목소리를 들을 수 없어 안타깝다.

▲총무원장 선거 때부터 '정지승' 보다는 '행정승' '수행승'이 되겠다고 말해왔는데 지금은 어떤가? — 계파정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모든 것을 옹호해야 사면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총무원에서는 호계원에서 내린 결정을 토대로 사면이나 경감 등을 총회에

한명우 기자

운영 활발 신도회 35% 불과

조계종 중신회, 스님·종무원·임원 등 조사

조계종 불자의 90% 이상이 사찰신도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신도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찰은 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도회가 없거나(12.5%) 유명무실하다(19.6%)는 응답이 32%에 달했고, '활동이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3.1%나 돼 신도회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관으로 2월부터 2개월간 1,922개 사찰의 주지, 소임자, 종무원, 신도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신도회 현황조사에서 회신을 보내온 658명의 응답을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신도 임원 선출방식에 있어서는 주지스님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거나 주지스님이 지명해 신도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응답이 48.5%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는 응답(47.2%)보다 많아 자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회 예산의 경우, 목적사업비(11.6%)나 포교활동비(7%), 사회복지 후원금(13.3%) 등 신도회 및 포교활성화를 위한 지출은 31.9%에 불과해 신도회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들의 신도회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

도의 상당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8.7%에 불과한 반면, '소수 임원들만 또는 마지못해 참여한다'는 응답은 63.2%에 달했다. 사찰신도회 활동이 미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42.2%(218명)가 신도들의 관심 부족이라고 응답했고, 빈약한 재정 때문이라는 응답도 28.2%(146명)에 달했다. 바람직한 신도회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66.7%에 달하는 435명이 신도회에 자율성이 주어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89.5%가 신도회 재정운영을 독립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2003년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안내

가야산 해인사

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제20회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고려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법보종찰로서 불교문화와 수행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현재는 총림(叢林/종합수도원)으로서 조계종 중점 법전 대종사를 중심으로 250여명의 스님들이 정진하고 있는 한국불교 최대의 수행도량입니다.

해인사의 수련회 일정은 참선과 묵언 등 엄격하고 신심 있는 내용으로 스님들과 똑 같은 수행 프로그램으로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4박5일의 기간을 통해 단기 출가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의미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인사의 새벽 예불은 타성에 젖은 수련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잔잔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 여름 수련회 수련생을 아래의 일정과 절차로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수련주제: "아름다운 인연은 가장 가까이 있다"

'2003 여름수련법회 일정'

기 간	연 령	대 상 자	인 원
1차 7월 1일(화)~7월 5일(토)	20 ~ 60세 이하	일반인	130명
2차 7월 8일(화)~7월 12일(토)	"	"	130명
3차 7월 15일(화)~7월 19일(토)	"	"	130명
4차 7월 22일(화)~7월 26일(토)	"	"	130명
5차 7월 29일(화)~7월 31일(목)	14 ~ 19세이하	중·고등부	150명
6차 8월 5일(화)~8월 9일(토)	20 ~ 60세이하	일반인	130명
7차 8월 12일(화)~8월 16일(토)	"	"	130명

- 접수기간 : 2003년 6월 10일부터 선착순 마감
- 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및 팩스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팩스 신청하실 때는 전송 후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련회 참가비 : 일반부 8만원, 중·고등부 6만원(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포함)
- 접수방법 및 통보 : 선착순 접수에 의해 마감하며, 참가비 입금이 확인되면 수련생으로 정식 등록이 됩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차수 변경은 3일전까지만 가능하며, 불참하더라도 입금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좌번호 : 수련회 참가비는 아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됩니다. ☎ 농 협 : 843174-51-006770 (예금주 : 해인사) * 입금하실 때는 자신이 원하는 차수를 이름 뒤에 기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하얀 고무신, 하얀 양말, 쌀 1되와 상·하 법복이 있는 분은 가져올 것
- 접수안내 : 055-932-7430(포교국), 팩스 055-931-6448
- 자세한 것은 해인사 홈페이지(www.haein-sa.org)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